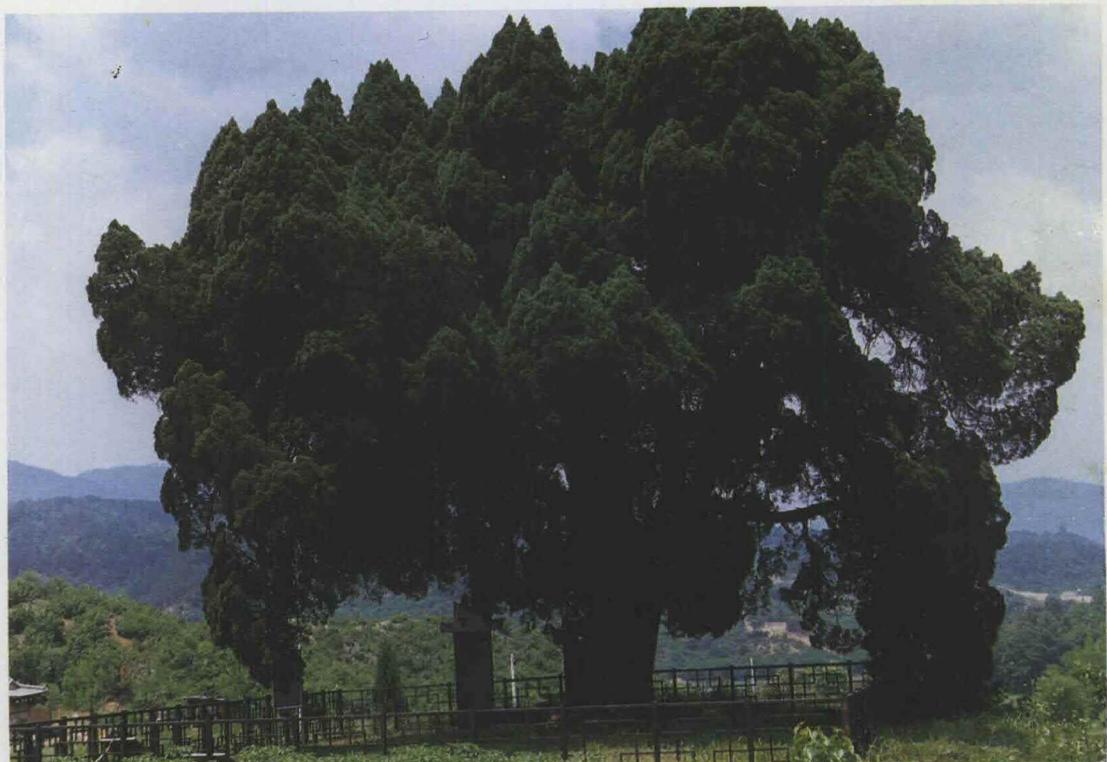


# 천혜의 자원 및 사찰



양지리 향나무(천연기념물 제 232호)

- I. 名勝景觀
- II. 寺 刹
- III. 天然紀念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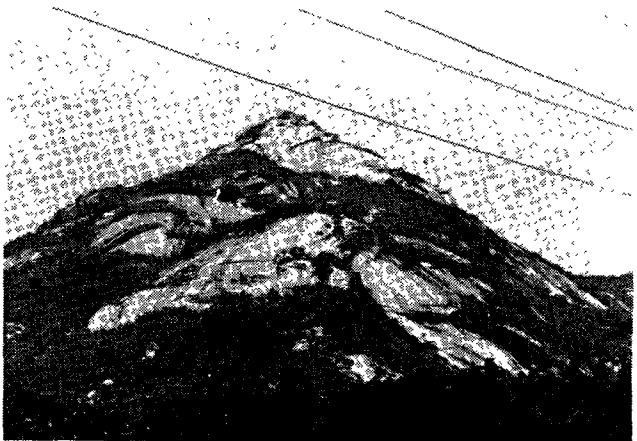
## I. 명승경관

### 1. 佛岩山

불암산은 옛 노해면과 별내면에 걸쳐있다. 창동역 동쪽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다. 서편은 한강지류 豆驗川平野 건너 북한강과 마주하고 있는 험준한 암산이다. 최고봉의 표고는 570m로 봉 그 자체가 한개의 준험한 거암 같은 감까지 준다. 불암의 제2봉은 제일봉 남쪽에 420m의 표고로 깎아지른 듯 우뚝솟아 있다. 암석이면서도 정교를 다한 형형색색의 물체형 암석과 수십, 수백장의 절벽 바위틈에 그림처럼 매어달린 기송(奇松), 봄(三春)의 철쭉, 구월의 단풍은 전산을 하나의 학원으로 만든다. 심곡에서 들려오는 두 견의 애끓는 울음 소리를 나무라듯 훠목조(딱다구리 종류에 속하는 새)의 나무 쫓는 소리가 특히 인상적으로 들려온다.

정상에 오르면 산성지가 남아있다. 산성지라기에는 초라하여 烽火臺地가 아니었던가 하는 설도 있으나 확연치 않다.

제2봉 남쪽숲에는 두개의 능묘가 있는데 康陵과 泰陵이 그것이다.



### 2. 水落山



도봉산과 마주하여 불암산 북방에 砂岩으로만 되어 우뚝 선 산이 있는데 이것이 수락산이다. 사암산이어서 수목은 울창하지 못하나 산중에 金流洞, 隱仙洞, 玉流洞의 세 연못이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창동이나 의정부에서 등산할 수 있다. 수락산의 모든 봉우리는 거의 전부가 서울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李太祖는 서울 수호산이라고까지 칭찬하였다

한다. 사실 水落連峯은 과거 한양 방어선이었다고 한다. 별내면에 있다.

### 3. 禮峯山

瓦阜邑陶谷里는 서북표으로 水落山 천봉이 佛巖山을 연결하고 다시 天摩山이 되니 그 웅장함과  
장장 내용은 용호가 상쟁하듯 울창한 수림은 도처승경이다.

다시 甲山이 되고 雲吉山을 기봉하여 또 다시 禮峯山이 되니 陶谷의 巽巳方을 막는 守口幕이 되고 또 다시 八堂里를 종점으로하여 突兀한 산용은 사시의 구름이 잠겨있고 남으로 한강을 끝하니 옛날에 이 산에 올라보면 한수창파를 안전에 두고 오가는 商船은 쌍쌍이 나는 白鳥와 같이 순풍의 뜻을 달고 흘러갔다 한다. 무궁무진한 대자연의 감상뿐 아니라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면 朝鮮 오백년의 吉祥地勢를 이곳에서 朝會하는 듯하고 東九陵 신령한 지역과도 멀리 연관된 산세이다.

원래 덕소 시장의 주산이요 울창한 산림이 동막 부근등지의 燃料는 물론 수백년간 한양의 땔감을 동대문을 거쳐 도성안으로 공급하던 중요한 산이었다 한다.

### 4. 天摩山

李太祖가 登極하기 이전 사냥차 이곳에 당도하여 山勢를 살피니 萬疊青山이 高山俊嶺이라 우선 농부에게 山名을 물으니 小人은 무식하여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왕은 혼자말로 人間到處有青山 이지만 이산은 手長三尺可摩天이라 하고 갔다. 풀이하면 “인간이 가는 곳마다 청산은 수 없이 있지만은 이런 산은 매우 높아 푸른 하늘에 흘(笏<sup>4</sup>)이 꽂힌것 같아 손이 석자만 더 길었으면 가히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라고 賞歎한데서부터 天摩山(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해발(海拔) 812m의 이 산은 지금은 서울 近郊에서 唯一한 등산 코스이기도 한데, 登山코스에 娛樂, 休憩, 運動, 冒險施設, 多目的廣場, 家族單位, 野營地, 그룹야영지 등의 施設을 갖추어 山岳風致의 探勝 과 青少年 들의 餘暇活用場所로 利用되고 있는 國內 唯一의 心身修鍊場이다.

## 5. 王宿川

榛接面 富坪, 長峴, 內閣, 內谷里 앞을 흐르는 내는 태조가 상왕으로 있을 때 팔야리에서 팔일간 유숙하고 또 내각리에 별궁을 짓고 있었다 하여 王宿川이라 불린다.

혹은 세조대왕의 광릉 안장후 先王이 永宿(길이 잠든다)한다는 뜻에서 王宿川이라고 한다고도 전하는데 이 곳 노인들은 「왕산내」라고도 부른다. 이 하천은 군내 蓼蓮坪(내각, 내곡, 연평리 앞)의 넓은 평야를 灌溉하여 식량 생산의 큰 역할을 하여 왔고 근래에는 밤섬유원지 등 관광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 6. 八堂湖

瓦阜邑 八堂里는 남양주의 남단이다. 天摩山 줄기가 甲山과 雲吉山을 거쳐 禮峯山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벌려있어 다시 만학천봉이 되니 그 지세가 장관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어 萬頃蒼波를 이룬 곳인데 洞庭湖 칠백리에 저문 구름이 합하였다가는 흩어지고(合而後散) 흩어졌다가는 다시 합하는(散而後合) 것도 같고 거울 속같은 깊은 물에 뭇산이 비치니 물고기가 산에서 뛰더라(山倒清溪魚躍)는 옛 시와



도 같다. 서산낙조에 뛰는 고기 떼와 하늘빛  
과 구름 그림자가 한가지로 배회한다(天光  
雲影共徘徊)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곳을 인공으로 막으니 이것이 유명한 팔당댐이다. 한강 하류의 홍수를 조절하여 8만kW의 발전과 장차 깨끗한 수원지가 될 것이니 우리 민족의 생명수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또한 관광지로도 개발되어 詩人黑客과 遊人來客이 늘 끊이지 않는다. 팔당의 유래는 원래 호수 부근에 당집이 여덟이 있었다 하여 八堂이라고 전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서 찾을길이 없고 한곳 만 당터가 남아있어 기와쪽과 담 쳤던 흔적을 고증할 수 있으며 동네이름만 上八堂 · 下八堂으로 불려진다.

하팔당에는 천고의 신비를 간직한 老松이 그림같이 우뚝 서 있어 錦上添花를 이루고 있다.

## 7. 文谷瀑布

瓦阜邑 陶谷里에 있는 文谷瀑布는 雲吉山에서 發源하여 장장 5km의 계곡이 되어 흐르다가 이곳에 와서 瀑布로 떨어지니 『떨어진 물은 연못이 되고 넘쳐 흐르는 물은 맑은 샘이되어 기암괴석을 안고 흐르는 물이 장차 돌을 뚫으려고 돌 사이로 돌아든다』(水將穿石石間回)는 옛 시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瀑布의 깊이가 물속으로 한강과 상통한다고 하였는데 수년전 대홍수에 魚容貯水池가 파괴되어 瀑布의 일부가 매몰되었다.

## 8. 水落山 遊園地

수락선 유원지는 別內面 青鶴里에 위치한 수락산 계곡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울 근교의 道峰山과 함께 양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山勢가 雄壯할 뿐 아니라 깊은 계곡의 수려함은 蘇東坡의 말대로 清淨身<sup>1)</sup>이고 산 전체가 石壁과 암반으로 도처에 奇岩怪石이다. 계곡을 흐르는 물 또한 자연 玉流 · 金流 · 瀑布의 絶景을 이루어 예로부터 詩人 · 黑客이 耽美하던 곳이다. 山中の名所로는 오리바위를 돌아 오솔길을 거쳐 212계단의 가파른 돌층계를 오르면 內院庵의 祕境이 그윽하고 해발 637m를 장식하는 투구 · 고속 · 오리봉의 장관과 칠성대 · 향로봉 · 미륵봉의 奇形이 눈을 끈다. 정상에는 登山客의 휴게소인 산장과 약수가 있어 계절의 구애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다. 교통편도 청량리에서 40분간격으로 출발하는 의정부행버스로 별내면 청학리까지 13km의 위치에 있고 의정부에서는 10분간격의 시내버스로 8km의 거리에 있다. 수락산 계곡에는 속칭 「마당바위」로 불리는 유원지가 있어 여름 한 철 피서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곳곳에 울창한 潤葉樹林으로 가을 丹楓이 유명하여 유서깊은 興國寺 · 佛岩寺를 山麓에 감싸고 있어 風光明媚한 대자

연의 신비로움이 승려의 독경소리에 은은하다.

참고로 年代미상이나 정허 居士가 수락산의 仙景을 즐겨 불렀다는 水落八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楊州라 水落山을 예듣고 이제오니  
아름답게 솟은 峯이 구름속에 장관일세  
青鶴洞 찾아들어 玉流瀑에 다다르니  
거울같은 맑은 물이 수정같이 흘러가네  
푸른 松林 바위길을 더듬어서 발 옮기니  
白雲洞에 銀流瀑이 그림같이 내려 쏟고  
紫霞洞에 돌아들어 金流瀑을 바라보니  
仙女내려 목욕할 듯 오색서기 영롱쿠나  
미륵봉의 흰구름은 하늘가에 실려 있고  
향로봉의 맑은 바람 시원하기 짹이 없네  
칠성대 기암괴석 금강산이 무색하고  
울긋불긋 고운 丹楓 그림인 듯 선경인듯  
內院庵 풍경소리 저녁연기 물소리에  
불로정 맑은 薬水 감로수가 이 아닌가  
선인봉 영락대에 신선 선녀 놀고 가니  
청학 白鶴 간곳없고 구름만이 오고가네

## 9. 水洞 遊園地

수동면 松川 · 雲水 · 立石 · 水山 · 秘琴리 일대는 地名이 말해주듯 한 폭의 그림이다. 어디를 가나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물골안」 이란 속지명이 있는 이곳은 산굽이마다 아담하게 자리잡은 圃田 풍경이 또한 桃園境 을 연상케 한다. 祝靈山脈이 西南을 향하여 줄기줄기 뻗어내린 아득한 골짜기마다 울창한 樹林이 太古의 신비를 간직한채 山村의 한가로움을 감싸고 있다. 석수대는 수동유원지의 첫째가는 승경인데 이 곳의 岩盤에 시대미상이나, 300여년 전의 刻字로 추정되는 「石泉我默居偏愛青山青不老」라는 石龜



가 있어 옛 선현도 이 곳의 山水를 즐기면서 吟風弄月의 詩想을 가다듬었음을 알게 한다. 수동교를 지나면 石水長林의 水石이 좋다. 물의 고장 수동면은 산세의 수려함 위에 곳곳에 흘어진 암벽의 운치가 造形美를 배제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친근감을 더해준다. 祝靈山의 등산 코스도 이 곳을 찾는 都市人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부한 산나물과 수십종의 山果를 비롯, 베섯·더덕·도라지·고비·고사리·두릅 등의 토산품과 토종꿀·밤·잣 등을 이 곳의 명물이다. 『飛龍彩雲 晚翠陸橋 唐豆坪野 石水長林 水橋望月 雲水暮煙 黃牛明沙 祕琴溪谷』은 이 고장의 八景으로 특히 손꼽히는 景觀이다.

## 10. 八堂 遊園地

와부읍 팔당리 漢江上流 연안일대를 팔당유원지라고 한다. 중앙선 鐵道와 강릉선 國道가 나란히 이곳을 지나고 있고 서울에서 24km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이곳에는 1974년 5월 24일 준공된 웅장한 팔당댐이 있어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 댐으로 인하여 댐상류의 양주·광주·양평을 연한 1천 1백만평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2억 4천 4백만톤의 물을 저장하는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3군(郡)의 경계가 굽이굽이 江岸에 山影을 드리우고 있는 이곳은 족자섬의 절묘한 모습과 더불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듯 하며 湖心을 수놓은 山影은 落照와 조화를 이루어 自然美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수심이 깊어 물빛이 아름다우며 담수어족인 잉어·쏘가리·장어 등이 서식하여 水面에 과문을 일으키는 이들 魚族의 銀鱗 또한 일품이다.



팔당유원지

## 11. 밤섬 유원지

진접면 내각리에 있다. 王宿川이 흐르고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19,162평의 섬이다. 이곳은 밤나무·포플러로 숲을 이루고 있고 활터·탁구장·보트장이 있다. 조선조 중엽에 茲村 李喜朝가 세운 太極亭이 있어 경관이 한층 더 좋다.

## 12. 光陵 藥水

榛接面 富坪里 奉先寺 後麓 高峯 후면에 있는데 四時節의 풍치도 좋으려니와 항상 一定量의 湧水가 암석간에서 흘러나와 소화불량 기타 각 병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 있어 고래로부터 약수를 복용하는 부녀자가 많았다. 특히 매년 3月 3日, 4月 8日, 단오절 등에는 이 곳에 와서 노금메를 지어 올려 정성을 드렸는데 오기전 3일 내지 7일부터 비린 것은 먹지 않고 부정한 것도 멀리 하였다.

## 13. 光陵林

광릉림은 남양주군의 진접·별내면·의정부시와 포천군의 내촌·소흘면에 걸친 약 3,000ha의 광대한 면적의 임야다.

이곳은 1468년(世祖 14) 세조대왕의 왕릉부속림으로 설정된 아래 도별을 금하여 임목을 보호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 후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에는 光陵·順康園·徽慶園 등의 수호를 위하여 이왕직소유(現, 舊王宮所有)로 일부를 分給하고 그 중 대부분을 임업시험림으로 책정하여 현재까지 試驗林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릉림은 거의가 國有林이나 이 가운데는 구왕궁소유림, 사찰림, 학교림 등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광릉림은 針葉樹林 濶葉樹林 混淆林 기타 임목지로 구분되는데 이곳에는 크낙새의 772종의 조류,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광릉 물푸레나무외 181종의 수종과 광릉 갈퀴외 779종의 진귀한 草類 秀型木 10수종 72본이 있다.

이곳에는 또한 1911년 일제총독부에 의하여 要存國有林野로 편입된 아래 1912년 임업시험장 묘포를 개설, 1929년 동 임업시험장 광릉출장소가 창설된 후 1967년 임업시험장 중부지장으로 개칭된 광릉임업시험장이 있다. 시험장내 樹木園에는 산림공무원 교육장과 묘포가 있는데 묘포에는 외국수종 30종, 국내수종 200종, 약용식물 120종, 목초 30과 밤나무품종 보존원, 밤나무 採穫園 등이 있어 식물 및 鳥類 연구의 산 標本地가 되고 있다.

白晝에도 어득침침한 樹海인 이곳 광릉림은 중간에 王宿川의 清流가 흐르는 풍치와 가을 단풍의 장관 등으로 연중 光觀客이 끊이지 않는 명승지로서 유명하거나와 한국제1의 원시림을 자랑하고 있는 산림의 寶庫이자 動植物의 낙원이기도 한 곳이다. [資料:1976年度, 林業試驗場中部支場現況]



光陵林

## II. 寺刹

### 1. 奉先寺

진접면 부평리 255번지 雲巖山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기 1551年(明宗6)에는 禪教兩宗의 두교파 중에서 교종의 首寺로 추천되어 전국 승려 및 신도에 대한 교학진흥의 중추적 기관이 되었고, 서기 1902년(高宗光武6)에는 경기도의 수사가 되어 도내의 전 사찰을 관장하였다. 1911년 일본에서 조선사찰령을 반포하고 조선총독부에서도 사찰령 시행규칙을 반포하여 우리나라 전국 사찰을 三十一本山으로 획정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제1교구 본산이었는데 6.25사변으로 완전 소실되어 5. 16혁명 이후 1962년 4월 12일에 남한만의 전국사찰을二十四本山制度로 획정할 때는 제외되었었다. 1968년에 다시 본산으로 승격되어 현재는 의정부시, 남양주군, 양주군, 포천군, 파주군,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등 2시6군을 관장 지도하고 있다.

처음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光陵誌 및 奉先寺記를 참고하여 보면 서기 969년(고려 제4대 광종20)에 法印國師가 開山하고 雲巖寺라고 하였던 것을 약 500년후인 1469년(조선 제9대 예종원년)에 先王의 灵을 봉안키 위해 貞王后尹氏의 명을 받고 河城府院君鄭顯祖上黨府院君韓明澮, 綾城府院君具致寬 등이 이곳에 이르러 절간이 도피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산세의 수려함이 勝地라고 생각하여 이곳에 다시 89간 되는 큰 사원을 짓고 世祖大王이 직접 낙성을 하였다.

이 때부터 선왕의 영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으로 봉선사라 이름하게 되었고, 大梵鍾을 주성하게 되었으며 사찰의 크기는 그 당시에는 이보다 큰 곳이 전국에 없었다고 한다.

봉선사라는 혼판은 예종대왕이 직접 쓴 것이었으나 1952년 임진왜란 및 1636년의 병자호란 등 두 차례의 兵火로 완전 소실된 것을 1637년에 주지 啓印禪師가 중건하고 1749년에 주지 再霽禪師가 중수하였으며, 1948년에 省庵, 月城, 龍岳 등 스님이 중수하여 그 면모를 점점 회복하는 듯했으나 6.25사변으로 14동 150간의 寺宇가 또 한번 완전 소실되었다.

그러나, 복원의 원을 세우고 1956년에 華嚴스님이 범종각을 세운데 이어 1961년에 雲鏡, 淩虛 두 스님이 雲霞堂을, 1969년에는 耕虛禪師가 큰 범당을, 1972년 및 1973년에는 滿虛禪師가 庭中塔 및



放跡堂을 복원하고 月雲禪師의 원력으로 灵閣이 1977년에 복원되었으며 각종 요사도 거의 복원되었다. 본 교구 산하에는 64개의 末寺가 있는데 본사와 말사 연합으로 學僧을 양성하는 佛教專門講院이 봉선사에 있고, 광동중·고등학교(진접면 장현리) 및 광동여자고등학교(의정부시 가능동)를 세워 지역사회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옛 기록은 원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 세조대왕 및 정희왕후의 玄宮重地임을 뜻하는 楊州 牧地雲岳山奉先寺에 대한 글이 康熙61년 壬寅8月에 써어져 내력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선왕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창건된 절인만큼 조선 열성조위패를 봉안하였음을 엿 볼 수 있는 世祖惠莊大王, 貞熹王后尹氏, 肅宗顯義大王, 仁顯王后閔氏, 仁元王后金氏, 仁敬王后金氏, 寧嬪金氏 등의 七位를 봉안, 歲時 및 춘추로 祭享을 올렸다고 하였으나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 알 수 없다.

## 2. 佛巖寺

별내면 화접리 797번지 佛巖山에 있는 절로서 최초 창건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智證大師가 開山하고 佛巖寺라고 하였으니 지증대사의 생존해인 824년(신라 제41대 현덕왕)부터 882년(신라제49대 현강왕)사이에 창건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897년(신라 제52대 효공왕)경에 道詵國師가 중건한데 이어 1400년경(조선 제3대 태종) 無學 白超國師가 중수하고 1782년(정조 6년)에 瑞岳和尚이 普光明殿, 觀音殿을 중수하고, 霽月樓를 다른 곳에서 옮겨다 지었다.

1910년 조선말기에 豊川任氏가 獨聖閣, 山神閣, 東竺堂을 창건한데 이어서 1959년에 溝虛和尚이 七星閣을 창건했다.

이 사찰 뒤에 佛巖峯이 있는데 그 봉우리 밑에 한 폭포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 같고, 수 없는 물줄기를 이뤄 近畿地方의 일대 명승지이므로 동쪽에 佛巖, 서쪽에 津寬, 남쪽에 三幕, 북쪽에 僧伽 등의 절을 꼽고 있다.

옛날 기록에는 佛巖寺 事蹟碑가 경내에 있고, 霽月樓에 원본으로 혼존하는 佛巖寺重修記, 霽月樓重建記, 樓閣重建記, 佛巖寺重修記 등이 있으며 일제치하에 공출되어 없어진 불암사 범종을 대신하듯 佛巖寺梵鍾錄이 남아 있다.

문화재로는 경판 총31종 591매를 1973년에 경기도지방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한 후 다시 1975년에 釋氏源流(212枚)를 국가지정보물 제591호로 지정하여 212매를 제외한 379매만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53호로 되어 있다.



### 3. 内院庵

별내면 청학리 103번지 수락산에 있는 절로 최초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内院庵七星閣新建記에 의하면 조정에서 1794년(정조 18)에 내원암 서쪽에 칠성각을 짓고 光膺殿이라고 한것을 보면 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어 이때부터 창건으로 계산하고 있다.

2년후인 1796년(정조 20)에 조정에서 四聖殿을 건축한데 이어 1825년(순조 25)에 仁峯和尚이 조정의 내탕금으로 知足樓를 신건하였다.

1831년(순조 31)에 조정에서 내탕금으로 寺宇를 깨끗이 단장하고, 20년후인 1851년(철종 2)에 庸庵長老가 광응전을 중수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완전 소실된 것을 1955년에 性敏스님이 칠성각 및 요사를 복원하고 1968년에는 대웅전을 신건하였다.

古記錄으로는 정조대왕이 왕세자가 없어 걱정하던 중 이곳 내원암에 있던 龍坡스님과 삼각산 금선암에 있던 豊山스님이 기도를 하여 농상스님이 왕세자(후일의 순조)로 임태되는 것을 증명하는 용파대사와 농산대사의 서한이 원본아닌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고, 内院庵七星閣新建記 · 内院庵四聖殿記 · 新建知足樓記 · 内院庵重建記 · 光膺殿重建記 등이 역시 원본이 아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정조대왕의 친필인 光膺殿과 순조대왕의 친필인 極樂寶殿의 액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명승으로는 金流洞, 玉流洞, 향로봉, 미륵봉, 칠성대 등이 있으며 古物로는 순조대왕이 법사 7인을 두어 경을 읽게 하면서 내려준 冊丈鎮壓用 玉文鎮이 그 당시에는 14개 있었는데 지금은 6.25사변의 쓰라린 전흔만 보일 뿐 찾을 길이 없다.

고승의 기도로 왕세자인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전설편 참조)

## 4. 見聖寺

진건면 송릉리 3번지2 天摩山에 있는 절로서 고려 開國功臣인 豐壤趙氏始祖 侍中孟公이 隱居養德하다가 藥師聖像을 친견하였다 하여 그 후손들이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절을 짓고, 견성암이라 하였으나 처음 창건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략 고려조 중엽으로 추정된다.

서기 1860년(조선 철종11)에 趙侍中의 후손이며 스님인 寶月慧昭가 法殿과 雨花樓를 중수하고, 1882년(고종19)에 凤城知尙이 중수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옛 기록으로는 見聖庵重修記, 見聖庵雨花樓記, 見聖庵重修各部幀畫新成記 등이 있고, 趙侍中이 수양할 때 마시던 우물이란 뜻으로 獨井이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아 인근 부락에서 음료수를 가물때는 길어가기도 하는데 당사를 “독쟁이절”이라 하며 山下村을 獨井里라 부른다.

또한 조시중이 수양할 때 가거했다는 修養窟이 있고, 지금도 조씨문중에서 이름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지가 하나씩 말라 죽는다는 紀念松이 있는데, 이는 조씨중이 기념으로 직접 심은 것이라 한다. 또한 견승암주변에는 희귀한 초롱꽃이 10월이면 만개되며 이곳에서 자생하고 있다.

## 5. 水鍾寺

조안면 송촌리 1060번지 운길산에 있는 절로서 연대는 신라때로 추정될 뿐 확실한 고증은 없으나 폐허된 舊址에 水鍾寺를 창건하게 된것은 서기 1459년(세조5)에 세조대왕의 명에 의해 복원되었다.

수종사로 명명된 것은 세조대왕이 만년에 지병인 문동병으로 五臺山까지 갔다가 水路로 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도중에 兩水里까지 왔을 때 밤이되어 물위의 밤경치를 보고 있는데 머리 위에 솟은 雲吉山에서 문득 종소리가 들렸다.

이에 使者를 보내어 숲속을 조사해보니 천년고찰의 폐허된 흔적이 있고 岩壁에 十八羅漢像이 열좌되었는데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감동된 세조대왕은 곧 마음을 내어 그곳에 수종사를 복원하고 연유를 감안하여 수종사라고 명명한 것이다.

1890년(고종27)에 楓溪慧一이 중건한데 이어 1939년에 日照泰旭이 중수하고, 1975년에 慧光화상이 큰 법당을 창건하였다.

고적으로는 수종사의 舊址인 옛 절터와 석축을 볼 수 있고, 金石物로는 도지방유형문화재 제22호인 높이 8척의 多寶塔과 원형이 파손된 3층석탑 및 높이 5척의 貞懿翁主의 부도<sup>14)</sup>가 있다.

## 6. 寶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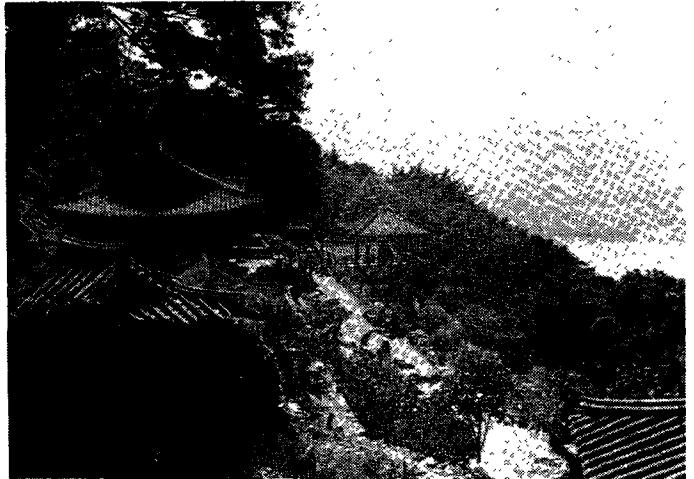
화도면 가곡리 149번지 천마산에 있는 절로서 서기 1851년(철종2)에 당시 判府事이던 李裕元이 동네에 큰 집을 짓고 당대의 훌륭한 華潭禪師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처음에는 이유원 자신의 기도를 위한 預刹로 시작된 것이다.

1894년(고종31)에 凤城和尚이 중수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완전 불탄 것을 鶴山스님이 다시 건립했다.

## 7. 石泉庵

별내면 화점리 산97번지 불암산에 있는 절로서 창건 연대는 신라 현덕왕때에 자증국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확실한 고증은 없다.

1882년(고종19)에 五衛將으로 있던 李某氏가 兵制改編에 따라 五衛制度가 해체되므로 입산하



여 당시의 황량한 舊址에 지금의 석천암을 짓고 수도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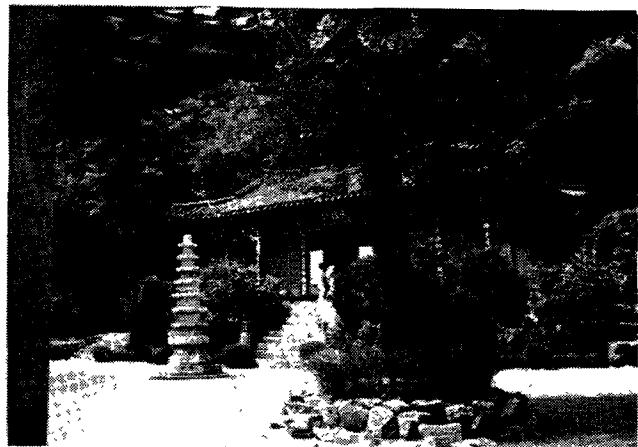
1922년에 處士 金漢九가 보수하고 공부하였으며, 1956년에 韓昶根 스님이 돌로 법당을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8. 妙寂寺

와부읍 월문리 222번지 묘석산에 있는 절로서 신라 문무왕(661년~680년)때 원효성사가 개산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고증은 얻을 수 없다.

輿地勝覽妙寂寺註에 金守溫이 기록한 것을 보면 조선 세조 당시에 이미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 이곳 寺地에 묘소를 안치(대웅전에서 약20m 동편에 묘 하나가 있고 비가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묘 주인은 이제면인데, 그의 사망은 1718년의 일이고 안장은 1719년, 입비는 17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한 것을 보면 이 무렵에 이미 寺運이 기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찰 주변 수십정에 달하는 면적에 초석 및 기왓장이 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한때는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95년(고종32)에 산신각을 창건하고 사숲의 면모를 갖추는 듯하더니 1969년 부처님 오신날에 실화로 완전불탄 것을 1971년에 慈信스님 1974년 雲山스님이 대웅전과 요사를 중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난에 승려들이 軍功을 세움에 南北漢營을 설립하고, 무예로써 과거를 보게 하던 시기에 묘적사에서도 이를 시행하여 활쏘기 연습등의 무예를 익혔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는 화살촉이 종종 산허리 평탄지점에서 발견되는 곳이 있고, 조성된 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7층석탑이 있다.

## 9. 奉永寺

진접면 내각리 148번지 泉岫山에 있는 고찰로서 서기 599년(신라 진평왕21)에 개산하고 奉仁庵이라 칭하였으나 창건한 스님은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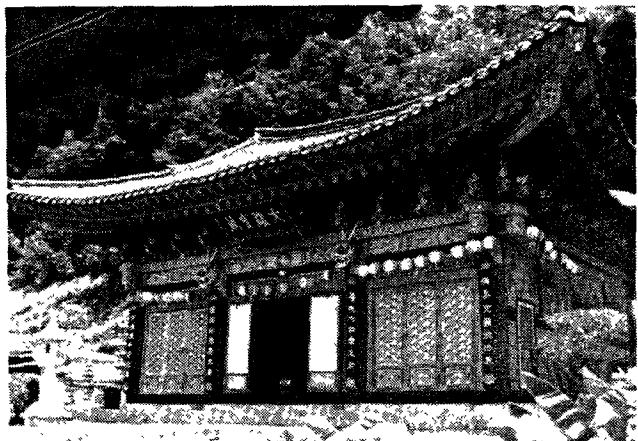
1737년(이조 영조13년)에 太顛, 海清, 致學 등 3명의 스님이 중창한데 이어서 약18년 후에 順康墓所를 園으로 추존하고 1755(영조31) 奉永寺로 개칭하였다.

서기 1968년에 慧鏡和尚이 요사를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옛 기록으로 奉仁庵重修懸板記, 奉永寺重修記, 奉永寺住持金東熙和尚大功德序 등이 있다.

## 10. 흥국사(興國寺)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331번지 수락산(水落山)에 있고 고찰로서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 때 원광국사(圓光法師)가 당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교화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도착하여 잠깐 머무는데 개암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속에 서로 부딪쳐 은빛을 이루고 조그만 초가집에 그 상서로움이 감돌고 있는가 하면 흐르는 샘물이 구슬같이 방울지며 갈라지어 초막 창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곳에서 수행을 하며 공부하면 산천의 청취속에 세속의 정을 빨리 끊고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하고 개산(開山)하여 절 이름을 수락사(水落寺)라고 하여 은빛샘물이 갈라지어 창가에 떨어짐을 뜻했으니 이때가 서기 599년 신라 진평왕 21년의 기미년의 일이다.

그 후 약 천년동안의 중창 및 보수한 것은 문헌이 없어 확인할 수 없고 이조 선조원년(李朝 宣祖元年) 서기 1568년 무진년(戊辰年)에 선조대왕이 자기의 생부인 중종의 9째 아들인 덕홍대군(德興大君)이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그의 묘소라도 능으로 승격시키고자 했으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 당시의 수락사에다 원당(願堂)을 짓고 덕홍대군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절 이름도 흥덕사(興德寺)라고 고쳐 부르도록 했다.



서기 1626년 인조(仁祖) 4년(丙寅年)에 다시 조정으로부터 사명(寺名)을 흥국사(興國寺)로 사칭(賜稱)하게 한뒤에 서기 1793년 정조(正祖) 17년(癸丑年)에 기허선사(騎虛禪師)에게 조정에서 내탕금(內努金:임금의 개인돈)을 하사하여 전사우(全寺宇)를 중수하게 하였고 서기 1818년 순조(純祖) 18년 무인년(戊寅年)에 만월전(滿月殿)과 양노실(養老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실(燒失)된것을 3년 후인 1821년 순조21년 신사년(辛巳年)에 다시 기허선사(騎虛禪師)에게 명하여 내탕금(內勞金)으로 대웅전(大雄殿) 십왕전(十王殿) 대방(大房) 기타 요사(寮舍)을 중건하고 연화

경7축(蓮花經7軸)으로 경회(經會)를 베풀고 낙성(落成)을 하였다.

서기 1855년 철종(哲宗) 7년 병진년(丙辰年)에 은봉선사(隱峯禪師)가 신녀양씨(信女梁氏)의 도움으로 만월전을 중수하고 1870년 고종(高宗) 7년 경오년(庚午年)에 제암(濟庵) 얼암(藥庵) 두 선사가 십왕전을 중수한데 이어 서기 1917년 왜정치하(倭政治下)에서 주지(住持) 범화화상(梵華和尚)이 모두 중수하였다.

옛 기록으로는 「興國寺六雄殿重建及佛像改金記文 興國寺十王殿重修記 興國寺萬歲樓戶重建記功文 興國寺鐵瓦重修記 興國寺事蹟」등이 있으며 (御筆屏八疊)병풍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十長生書展八疊)으로 된 병풍은 현존한다.

홍국사는 사찰중에 정원조경이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다.

## 약사여래 부처의 유래

남양주군 별내면 수락산(水落山)에 있는 홍국사(興國寺)는 대웅전과 동편에 지장전 서편에는 나한전이 있고 뒷편 북쪽에는 둉실한 축대위에 만월보전(滿月寶殿)이 있다.

만월보전은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신도들이 대웅전 부처님에게 기도하고는 틀림없이 약사여래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만큼 이곳 홍국사에는 약사신앙이 대단하다. 이 세상살이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인가 한다. 건강이 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될때의 고통이 무서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홍국사에 모시고 있는 약사여래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 특별한 영험내력이 전해져 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 전의 일이다. 서울 정릉골에는 봉국사(奉國寺)가 있는데 이절의 원래 이름이 약사절이다. 지금도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 절에서 약사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만하면 온갖병이 다 났고 소원이 성취되므로 많은 신도의 기도가 끊임날이 없었다. 법당의 기도를 맡은 스님들은 365일 동안 잠시도 쉴 겨를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해 정월달 법당 시중에 지친 스님들이 모여 앉아 하는 말이 “약사부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하고 입을 모아 무엄한 말이긴 하지만 피곤한 끝에 원망스럽게 투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났다. 법당에 가니 약사부처님이 안계신 것이다. 모든 스님이 밖으로 나와 사방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한식경 시간이 지나간 후에 동구밖의 개천가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발견한 것이다. 대중이 반가워 하고 참회하면서 옮겨 모시기로 했지만 꼼짝하지를 않았다. 석불(石佛)이기도 하였지만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았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짓이 아니었다. 부처님 자신이 뛰쳐나오신 것으로 밖에 생각을 할 도리밖에 없었다. 대중들은 참회하면서 부처님에게

“이곳이 마땅하지 않으시다면 어느 절로 가시겠습니까?”

“홍천사 입니까?”

“정토사 입니까?”

“명도절(개운사) 입니까?”

하고 서울 주변의 절은 모두 들먹이면서 좌대를 움직여 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대중들은 서울 외각지역의 사찰을 아뢰는 중 “홍국사로 가시렵니까? 하였을 때 부처님의 좌대가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봉국사의 스님들 중 스님도인이 부처님을 모시고 단숨에 홍국사까지 모실 수 있었으며 법당의 자리도 확정하지 못하고 모셔다 내키는대로 놓았던 자리인데 다시 자리를 움직이려 하니 요지부동이였다. 할수 없이 그곳에 부처님이 좌정할 곳으로 알게되어 그 자리에 오늘의 홍국사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된 것이다.

약사부처님에 대한 신앙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만은 못하지만 역시 한국불교 신앙속에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각처에 약사전이 있고 노처석불(露處石佛)의 약사당이 있다. 약사신앙은 중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앙으로 영원할 것이다.

### III.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

#### 1. 광릉 크낙새 서식지

指定番號: 天然紀念物 第11號

所 有: 國有 및 私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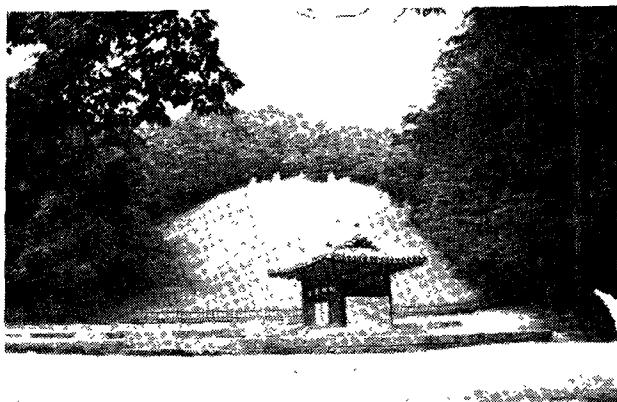
位 置: 榛接面 富坪里 山 99-1外 3筆

面 積: 756,000坪

이 크낙새棲息地는 抱川郡 蘇屹面, 內村面, 南楊州郡 榛接面, 別內面, 議政府市의 1個洞, 4個面에 걸쳐 位置하며 東西가 3,997m, 南北이 8,024m, 面積은 2,305km<sup>2</sup>에 이른다. 光陵은 朝鮮朝 460餘年間 至嚴한 保護制度下에서 下草의 採取까지도 嚴禁되어 왔으므로 山林은 울창하고, 크낙새가 棲息할 수 있는 巨樹도 許多하다. 비록 戰後의 伐採와 6.25의 戰禍로 많이 變貌하였을 망정 周邊의 山林이 赤裸한 烈山으로 變한데 比해 驚異的存在인 이 地域에서 自生植物 700種 以上이 알려져 있으며, 鈿葉樹는 소나무·잣나무·전나무·노간주나무(現在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等 樹種이 얼마 안되지만 潤葉樹는 約 150種이나 된다.

너도밤나무·신갈나무·떡갈나무 등, 참나무·서나무類·개벗나무·개살구나무 等 우리나라 中部의 代表的 潤葉樹種을 網羅한 곳이다. 바로 이곳을 크낙새는 生活의 據點으로 하여 現光陵林의 잣나무·전나무 또는 소나무 等 老巨樹를 為主로 一定한 코스를維持하여 約 6,000m<sup>2</sup>의 行動圈을 갖고 生活하고 있다. 이 크낙새는 이미 자취를 감춘 日本 對馬島나 光陵에서 아직까지 生活史를

밝힌 것이 거의 없다. 특히 繁殖生態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過去에 몇 쌍이나 繁殖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꽝 繁殖力이 弱한 鳥類이므로 自然保護와 함께 人爲的인 保護가 必要하다. 1970年 10餘年만에 한마리의 크낙새를 이곳에서 再發見한 以來 1973年에는 두 마리(아마도 한쌍인 듯)을 確認함에 이르렀으며, 1977年에는 크낙새 家族이 10여 마리로 늘어난 것은 큰 多幸이 아닐 수 없다. 繁殖場所는 蘇利峯 東北斜面이 아닌가 짐작된다.



## 2. 크 낙 새

크낙새는 世界에서 한반도의 中部地域에만 生存하고 있는 絶種危機의 희귀조이다. 딱다구리의 한 亞種으로 1968年 5月 30日 天然紀念物 第197號로 指定되었다.

몸 길이는 46cm로 까마귀 크기여서 딱다구리 中에서는 王子로 불릴 만큼 大形種이다. 수컷은 진홍색 머리꼭대기를 갖고 있으며 背面. 벽(喉)과 윗가슴은 黑色이고 나머지 下面과 허리는 白色이다.

日本의 對馬島에서 1978년 암컷 한마리를 채집하여 學界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1920년 아래 日本에서는 滅種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第2次 世界大戰 때까지는 黃海道 平山, 金剛山 松林寺, 開城 松岳山, 南楊州郡 光陵, 水原, 楊平, 軍浦, 忠南 天安, 慶南 釜山 부근 등 中部以南의 全域에서 捕獲되었으며 戰後에도 雪岳山, 京畿道 金谷, 俗離山 등지에서 追加 觀察되었으나 近來에 확인된 곳은 江原道 雪岳山과 南楊州郡의 光陵 뿐이다.

몸집이 크므로 巨樹로 우거진 숲속에 살며 老巨樹의 높은 곳에 직경 10cm정도의 구멍을 파서 큰 딱정벌레의 幼蟲을 잡아 먹는다. 까막딱다구리는 하늘을 날 때 어느 정도 波狀을 그리지만 크낙새는 날개를 펼칠 때 直線으로 난다. 따라서 얼핏 보면 어치가 하늘을 水平으로 나는 것 같다. 신속한 행동을 하여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遠距離移動은 하지 않는 텃새이다.

1971년 5월 1일 光陵 林業試驗林內 約 80年生 산밤나무에서 採食中인 수컷 한 마리를 발견하여 사진촬영에 成功하였다.

크낙새와 까막딱다구리는 비슷한 습성이 있어 나무껍질을 벗긴 자국을 보면 거의 脫皮되어 있 다시피 눈에 띄며 바닥에는 많은 樹皮가 쌓여 흘어져 있다. 크낙새가 판 나무 구멍도 光陵에서는 눈에 띄는데 보금자리를 위해 판 구멍만은 아니며 애벌레를 잡아먹은 구멍이 많다.

國際自然保存聯盟(IUCN)에서 刊行되는 絶種危機의 鳥類目錄(Red date book)에는 부호 104호로 등록되어 있다.

1) 東洋年表(李鉉宗) 編著p. 133~144<1971년>



### 3. 陽地里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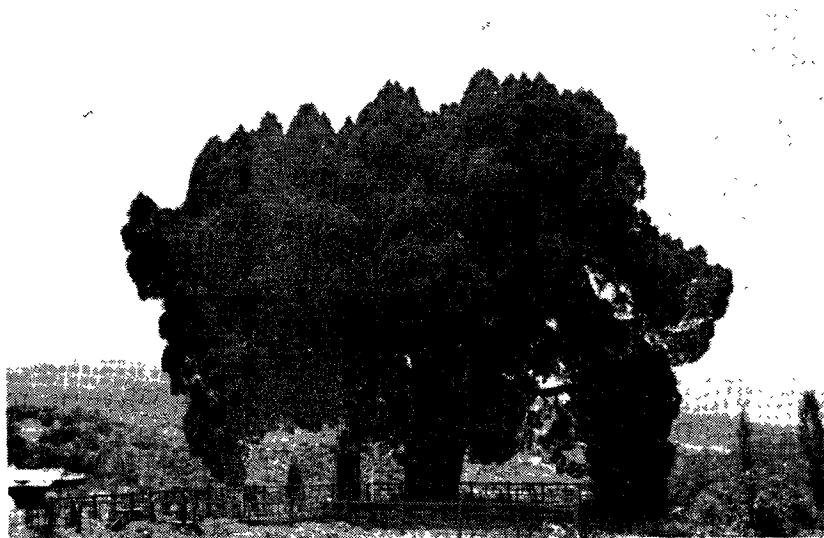
指定番號：天然紀念物 第232號

所 有：私 有

位 置：榛接面 陽地理 535番地

樹 齡：500年

溪谷 깊숙이 들어가서 南向 山麓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樹形全體가 공처럼 둥글다. 높이는 13m, 뿌리 근처의 둘레는 7m, 가슴 높이의 둘레는 3.35m, 가지 밑의 길이는 2.0m이며 가지의 길이는 東 쪽 5.7m, 西 쪽 5.7m, 南 쪽 8.5m이다. 2m 높이에서 원대가 자라고 5개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었다. 西 쪽 가지가 가장 크고 밑부분의 둘레가 1.8m정도이며 원대에 대신하여 一部는 곧게 자랐고 다시 4개로 갈라졌는데 그 중의 1개는 잘렸다. 西 쪽 가지는 1m쯤 나가서 2개로 갈라졌고 四方으로 퍼진 모든 가지에서 둋은 잔가지는 밑으로 축축 늘어져 全體의 樹形이 둥글게 되었다. 원대의 東 쪽 부분은 과거 香을 잘라서 使用했기 때문에 상처가 심하여 임시적으로 시멘트 염을 하였다. 이 나무는 居昌愼氏의 先祖를 모신 다음 옆에 심었던 나무가 자란 것이라고 하며 愼氏의 來歷에 관한 碑石이 있다.



天然紀念物 第 232號